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신 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끼치는 영향

차현수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Mental Health o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mong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Situation

Hyun-Su Cha
Department of Nursing, Se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신 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료는 전라남도 소재한 1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여 자료를 조사하였다.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 (frequency,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정신 건강 평균 점수는 1.74 ± 0.73 점 (범위:0-4)이었고 대학생활 적응 평균 점수는 3.22 ± 0.53 (범위:1-5)이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정신 건강($\beta = -.62, p < .001$)과 일반적 특성 중 정신질환 이환 유무($\beta = -.21, p = .018$)는 대학생활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정신 건강은 대학생활 적응에 38.2%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신 건강과 정신 질환 이환 유무가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정신 질환에 이환된 학생을 먼저 선별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한 후 정신 질환에 이환된 학생들에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mental health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completed by 123 nursing students in a university located in Jeollanam-do from March 1, 2022, to March 20, 2022.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2.0/WIN program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The mean scores of mental health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were 1.74 ± 0.73 (range:0-4) and 3.22 ± 0.53 (range:1-5). Mental health ($\beta = -.62, p < .001$) and contraction of mental illness ($\beta = -.21, p = .018$) negatively influenced the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ntal health accounted for 38.2% of the variance i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This study concluded that mental health negatively influence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mong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o help nursing students to adjust to university life, a program that first selects mentally ill students and then improves mental health needs to be developed. The developed program should be implemented for students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Keywords : COVID-19, Mental Health, University, Adjustment, Nursing Student

본 논문은 2023년 세한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un-Su Cha(Sehan Univ.)

email: cha-hyn-su@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1, 2023

Revised October 5, 2023

Accepted October 6, 2023

Published October 31, 2023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코로나19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에 최초로 발병한 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1]. 세계보건기구는 감염 확산의 심각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2020년 3월 11일에 전염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도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교와 사회의 변화로 학생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부적응을 일으켰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은 악화되었다[2-5]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변화는 등교가 제한되고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된 것이다. 학교에서의 비대면화는 학우, 선후배, 교수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학교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데다가 학비를 보조해주는 가정의 경제 침체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 건강의 변화는 비대면화가 외로움을 증가시켜 불안, 우울, 무기력 등을 심화시킨 것이다[6].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생이 대학생활과 상호작용을 하여 대학 환경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으로[7] 대학생활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적절한 대처는 향후 성인기의 개인적,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8].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끼치는 영향 요인을 조사한 선행연구로는 코로나19 스트레스[9-11], 간호전문직관, 회복 탄력성[12], 자기주도 학습[13,14], 대인관계능력, 학업 스트레스, 자아정체감[15],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학업성적, 대인관계[16], 대인관계능력,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17], 자기효능감, 전공선택동기, 한 달 용돈 금액[18],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19], 불안, 우울, 학습 만족도[20] 등이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끼치는 영향 요인으로 정신 건강을 조사한 연구는 적은 실정이다.

정신 건강이란, 일상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여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고각각의 개인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안녕 상태에 도달해서 자신이 소속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21].

코로나19로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시기에 대학생의 정신 건강에 대해 세계적으로 우려하였다[22]. 이러한 우려를 하는 이유는 평생 발병되는 정신 질환의 75%가 25세 이내에 발병되고[23] 정신 건강장애 발병 피크 연령이 대학생 시기의 연령이기 때문이다[24].

대학생은 말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라서 초기 성인기의 발달과업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기를 겪는다. 대학생은 초기 성인기 발달과업으로 성 역할, 직업 선택과 취직 준비, 부모로부터의 독립, 친구와 가족간 친한 관계 형성 등을 달성해야 한다. 대학생은 어렵고 많은 양의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값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파트 타임 취업을 해야 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25-27]. 이러한 이유들로 일반 성인에 비하여 대학생은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더 느끼게 된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직업을 가진 성인보다 대학생들이 불안과 우울 증상을 더 경험하게 만들었다[28]. 정신 건강 장애를 겪는 대학생은 대학생활 적응, 학업, 대인관계 유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성인 초기의 발달과업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다.

대학생 중 특히 간호대학생에게 양호한 정신 건강이 필요한 이유는 현대의 간호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전인 간호로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영적 건강까지를 돌보는 간호를 하는데[29]. 전인 간호를 하려면 간호대학생 스스로의 정신 건강이 양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호대학생의 정신 건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정신 건강 수준은 낮은 수준이다[30-32]. 간호대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학업과 임상실습은 어렵고 양이 많다. 학업을 이수하면서는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과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임상실습을 이수하면서는 대상자에게 해야 할 간호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학업과 임상실습의 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 건강 수준이 낮아진다.

코로나19 상황 중 간호대학생들은 등교가 제한되어 비대면 수업을 받았다. 등교 제한과 비대면 수업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감소시켜 외로움을 증가시켰다[6]. 외로움은 정신 건강 문제 중 불안증과 우울증을 야기하였다[33,34]. 불안증과 우울증은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나 특히 20대층이 전 연령층 중 불안증과 우울증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35].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최초로 불안증 유병률을 조사하여 메타 분석을 한 Chang 등(2021)[36]에서의 불안증의 유병률 합산은 31%(CI:23-39%, 95%)이었다. 코로나19 발병 전 대학생의 불안증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 Haikalis 등(2022)[37]에서의 불안증 유병률 28%(CI:22-34%, 95)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안증 유병률이 코로나19 발병 전 불안증 유병률 보다 높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35]에 의하면 우울이 코로나19 상황인 2021년 총점 27점 중 5.0점으로, 코로나19 상황 전인 2019년 총점 27점 중 2.1점보다 증가되었다. 특별히 30대와 20대 연령층의 평균 우울증 점수가 30대 연령층 5.6점과 20대 연령층 5.8점으로 높았다. 모든 연령대·성별 중 우울증 점수가 가장 높은 층은 20대 여성으로 평균 5.9점이었다.

코로나19로 간호대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될거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간호대학생들의 대다수가 20대 여성층이어서 다른 연령층보다 정신 건강 중 불안증과 우울증에 많이 이환되기 때문이다[35].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과 정신 건강은 새로운 학습방법인 비대면 학습방법을 사용하는 대학교에 적용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38]. 코로나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정신 건강의 악화는 대학생 적응을 어렵게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정신 건강이 학교생활 적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39-41]는 모두 코로나19 상황 전에 시행된 연구로 정신 건강이 학교생활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워짐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의 제한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으로는 첫째, 선행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2019년 이전에 연구되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파악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최근 2022년에 자료를 수집하여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은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에 변화를 가져왔다. 변화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먼저 변화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 중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끼치는 영향 요인으로 정신 건강을 살펴본 연구가 적다는 또 다른 제한점이 있다. 간호대학생에게는 정신 건강이 중요하므로 정신 건강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반복 연구가 더 필요하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 전체에 대해서만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기에 학교생활 적응 하부영역에 대해서 영향요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대학생활 전체 적응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5가지 하부영역 적응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전체 적응만으로 적응을 판단하면 하부 각각의 적응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실제 적응이 왜곡된다[42].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이 대학생활 적응 전체와 5개 하부영역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정신 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시키려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간호대학생의 정신 건강, 대학생활 적응 실태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정신 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함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정신 건강, 대학생활 적응 등의 실태를 확인한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 건강, 대학생활 적응 각각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정신 건강, 대학생활 적응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정신 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정신 건강, 대학생활 적응 실태를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 정신 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S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SH:IRB 2021-100). 본 연구 대상자는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한 S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생이다.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연구에 동의한 간호학과생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된 설문지를 수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 사용된 표본수는 G*Power(3.0.10) Program으로 계산하였다. 통계방법은 다중 회귀분석이고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12]에서의 효과크기 .15(medium), 변수 11개(일반적 특성 1개, 정신 건강 하부영역 10개)

로 계산할 때, 산출된 표본수는 123명이었다. 응답자의 탈락율 20%를 고려하여 14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응답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응답 설문지 22부를 제거한 후 123명의 설문지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정신 건강

Derogatis(1973)[43]가 개발한 연구 도구를 Kim과 Kim(1984)[44]이 변안한 연구 도구 (SCL-90-R: Symptom Checklist-90-Revision, 이하 SCL-90-R)를 이용하였다. Kim과 Kim(1984)[37]의 SCL-90-R는 9개의 정신과적 증상을 자기 보고식으로 기술하는 임상 진단 연구 도구이다. SCL-90-R의 정신과적 증상 하부영역 9개에 따른 문항은 강박증 10문항, 신체화 12문항, 우울 13문항, 대인 예민성 9문항, 적대감 6문항, 불안 10문항, 편집증 6문항, 공포 불안 7문항, 부가적 증상 7문항, 정신증 10문항으로 총 90문항이다. 각 문항은 지난 1주일 동안 경험한 정신과적 증상의 정도에 따라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고, 0점 '전혀 없다'에서 4점 '아주 심하다'까지 부여하여 산출되었다. 총 점수는 최저 0점부터 최고 360점까지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 건강 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Derogatis(1973)[43]가 도구를 개발할 당시의 Cronbach α 값은 .77~.90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α 값은 .97~.99이었다.

2.3.2 대학생활 적응

Baker와 Stryk(1989)[42]가 개발하고 Lee(1999)[45]가 수정·변안한 대학생 적응도 검사(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이하 SACQ)를 이용하였다. Lee(1999)[45]의 SACQ는 5개의 하부영역(사회적 적응, 학문적 적응, 정서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신체적 적응)으로 구성된다. 각 5개의 하부영역은 5문항으로 총 25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를 이용하였고,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각 하부영역의 가능한 최저점수는 5점, 가능한 최고점수는 25점이다. 전체 대학생활 적응은 5개의 하부영역 점수를 모두 합산한 점수로 최저점수는 25점, 최고점수는 125점이다. Lee(1999)[45]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8였다.

2.4 연구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22.0/WIN Program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정신 건강, 대학생활 적응, 일반적 특성 등은 백분율, 빈도, 표준편차, 평균 등으로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 건강,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로 산출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정신 건강, 대학생활 적응 등 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 정신 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끼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 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81명(65.9%)으로 남성 42명(34.1%)보다 많았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64세(± 3.21) 이었다. 21~25세가 91명(74.1%), 19~20세가 21명(17.0%), 26세 이상이 11명(8.9%) 순이었다. 학년은 2학년 40명(32.5%), 3학년 31명(25.2%), 4학년 29명(23.6%), 1학년 23명(18.7%) 순이었다. 정신 질환에 이환된 대상자는 6명(4.9%), 정신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대상자는 117명(95.1%)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23)

Variable	Categories	n(%), Mean \pm SD
Gender	Female	81(65.9)
	Male	42(34.1)
Age(year)	19~20	21(17.0)
	21~25	91(74.1)
	>26	11(8.9)
	Total	22.64 \pm 3.21
Grade	Fresh man	23(18.7)
	Sophomore	40(32.5)
	Junior	31(25.2)
	Senior	29(23.6)
Contraction of Mental illness	Yss	6(4.9)
	No	117(95.1)

3.2 대상자의 정신 건강,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정신 건강,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정신 건강은 총점 0점~360점 사이에서 총점 158.80점(±66.55)이었고, 정신건강의 하부영역은 총점 0~4점 사이에서 총점 1.74점(±0.73)이었다. 정신건강 하부영역을 항목별로 보면, 강박증 평균 2.08점(±0.83), 대인 예민성 평균 1.93점(±0.88), 우울 평균 1.93점(±0.86), 불안 평균 1.69점(±0.84), 편집증 평균 1.67점(±0.80), 적대감 평균 1.58점(±0.74), 정신증 평균 1.56점(±0.74), 공포불안 평균 1.53점(±0.81), 신체화와 부가적인 증상은 평균 1.72점(±0.75) 순이었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총점 25~125점 사이에서 총점 평균 80.48점(±13.34)이었고 대학생활 적응 하부영역들은 1~5점 사이에서 총점 평균 3.22점(±0.53)이었다. 대학생활 적응 하부영역을 항목별로 보면 사회 적응은 평균 3.48점(±0.68), 정서

적응은 평균 3.36점(±0.83), 대학에 대한 애착은 평균 3.26점(±0.57), 신체 적응은 평균 3.17점(±0.74), 학문 적응은 평균 2.83점(±0.55) 순이었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 건강과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분석

3.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나는 정신 건강 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 나는 정신 건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정신 건강 하위 변수는 정신 질환 이환 유무($t=3.49, p=.001$)로 나타났다. 정신 질환에 이환된 대상자가 이환되지 않은 대상자보다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았다.

3.3.2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 나는 대학생활 적응 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 나는 대학생활 적응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대학 생활 적응 하위 변수는 정신 질환 이환유무 ($t=-2.40, p=.018$)로 나타났다. 정신 질환에 이환된 대상자가 이환되지 않은 대상자보다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낮았다.

Table 2. The level of mental health, and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N=123)

Variable	Variable Domain	Mean ±SD	Item Mean ±SD
Mental health	Tatal	158.80 ±66.55	1.74 ±0.73
	Somatizati-on	12.07 ±5.23	1.72 ±0.75
	Compulsive disorder	20.84 ±8.31	2.08 ±0.83
	Interperso-nal sensitivity	17.37 ±7.94	1.93 ±0.88
	Depression	25.12 ±11.20	1.93 ±0.86
	Anxiety	16.89 ±8.39	1.69 ±0.84
	Hostility	9.50 ±4.42	1.58 ±0.74
	Phobic anxiety	10.72 ±5.64	1.53 ±0.81
	Paranoid ideation	9.99 ±4.82	1.67 ±0.80
	Psychotici-sm	15.56 ±7.37	1.56 ±0.74
	Additional Item	12.07 ±5.23	1.72 ±0.75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Total	80.48 ±13.34
Academic adjustment		14.14 ±2.77	2.83 ±0.55
Social adjustment		17.40 ±3.39	3.48 ±0.68
Emotional adjustment		16.78 ±4.17	3.36 ±0.83
Physically adjustment		15.85 ±3.69	3.17 ±0.74
Attachment to the university		16.32 ±2.83	3.26 ±0.57

3.4 정신 건강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

정신 건강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정신 건강 전체는 대학생활 적응 전체($r=-.62, p<.001$)와 대학생활 적응의 5개 하부영역(학문 적응($r=-.30, p=.001$), 사회 적응($r=-.47, p<.001$), 정서 적응($r=-.65, p<.001$), 신체 적응($r=-.56, p<.001$), 대학에 대한 애착($r=-.41, p<.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신 건강 전체는 대학 생활 적응의 5개 하부영역 중 정서 적응과의 상관성($r=-.65, p<.001$)이 가장 높았다.

정신 건강의 10개 하부영역(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부가적인 증상)은 대학생활 적응 전체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신 건강의 10개 하부영역 중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 전체 간 상관성($r=-.68, p<.001$)이 가장 높았다.

정신 건강의 10개 하부영역 중 신체화($r=-.16, p=.071$)와 공포불안($r=-.14, p=.129$)은 대학 생활 적응의 5개 하부영역 중 학문 적응과 각각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정신 건강의 10개 하부영역과 대학생활 적응의 5개 하부영역 간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신 건강

Table 3. Mental health and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accors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3)

Variable	Categories	Mental health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M±SD	t/F(p)	M±SD	t/F(p)
Age(years)	19~20	14.08 ± 6.56	1.02(.362)	17.01 ± 2.90	2.13(.124)
	21~25	16.15 ± 6.79		16.01 ± 2.56	
	≥26	17.09 ± 5.55		15.07 ± 2.80	
Gender	Female	15.84 ± 6.47	-0.10(.924)	15.93 ± 2.49	-.94(.350)
	Male	15.96 ± 7.08		16.41 ± 2.99	
Grade	Fresh man	13.01 ± 5.22	1.83(.146)	17.17 ± 2.91	2.22(.090)
	Sophomore	16.75 ± 7.58		16.16 ± 2.42	
	Junior	16.22 ± 5.54		15.96 ± 2.60	
	Senior	16.59 ± 7.08		15.30 ± 2.70	
Contraction of Mental illness	Yss	24.73 ± 7.73	3.49(.001)	13.60 ± 1.74	-2.40(.018)
	No	15.43 ± 6.30		16.22 ± 2.65	

Table 4. Correlation matrix of variables (N=123)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total r(p)	Academic adjustment r(p)	Social adjustment r(p)	Emotional adjustment r(p)	Physically adjustment r(p)	Attachment to the university r(p)
Mental health Tatal	-.62(<.001)	-.30(.001)	-.47(<.001)	-.65(<.001)	-.56(<.001)	-.41(<.001)
Somatization	-.54(<.001)	-.16(.071)	-.38(<.001)	-.56(<.001)	-.54(<.001)	-.38(<.001)
Compulsive disorder	-.64(<.001)	-.39(<.001)	-.48(<.001)	-.65(<.001)	-.56(<.001)	-.38(<.001)
Interper-sonal sensitivity	-.57(<.001)	-.36(<.001)	-.45(<.001)	-.57(<.001)	-.46(<.001)	-.35(<.001)
Depression	-.68(<.001)	-.35(<.001)	-.52(<.001)	-.67(<.001)	-.60(<.001)	-.47(<.001)
Anxiety	-.53(<.001)	-.28(.002)	-.37(<.001)	-.48(<.001)	-.48(<.001)	-.32(<.001)
Hostility	-.57(<.001)	-.26(.004)	-.40(<.001)	-.62(<.001)	-.49(<.001)	-.40(<.001)
Phobic anxiety	-.49(<.001)	-.14(.129)	-.41(<.001)	-.52(<.001)	-.45(<.001)	-.32(<.001)
Paranoid ideation	-.50(<.001)	-.23(.012)	-.41(<.001)	-.52(<.001)	-.43(<.001)	-.33(<.001)
Psychoticism	-.52(<.001)	-.30(.001)	-.37(<.001)	-.54(.001)	-.47(<.001)	-.41(<.001)
Additional Item	-.57(<.001)	-.82(.001)	-.41(<.001)	-.56(<.001)	-.56(<.001)	-.38(<.001)

의 10개 하부영역 중 우울과 대학 생활 적응의 5개 하부 영역 중 정서 적응 간 상관성($r=-.67, p<.001$)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정신 건강이 좋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였다. 정신 건강의 10개 하부영역 중 우울은 대학생활 적응 전체와 대학생활 적응 하부영역 중 정서 적응 간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3.5 일반적 특성(정신 질환 이환유무), 정신 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끼치는 영향 정도

일반적 특성(정신 질환 이환유무), 정신 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

성(정신 질환 이환유무), 정신 건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을 하기전에 회귀분석 가정에 충족되는지 검정하였다. 그 결과 회귀분석 가정 모두를 충족하였기에 본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었다. 공차한계(Tolerance)값이 ~0.16로 1 이하이고 분산 팽창 지수(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5.74~6.20으로 10보다 크지 않아서 모든 독립변수들은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Durbin-Watson값이 2.03으로 2에 가까워서 자기상관도 없었다.

회귀모형을 분석하였더니 회귀모형이 유의하였다

Table 5. Influence of general characteristic(contraction of mental illness), mental health on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N=123)

In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Domain	B	SE	β	t(p)
Constant		20.06	0.49		40.87(<.001)
Contraction of Mental illness	Yes	-13.12	5.48	-.21	5.74(.018)
Mental health	total	-0.25	0.03	-.62	-8.75(<.001)
	Somatization	-1.85	0.27	-.54	-6.98(<.001)
	Compulsive disorder	-2.05	0.22	-.64	-9.15(<.001)
	Interpersonal sensitivity	-1.72	0.23	-.57	-7.61(<.001)
	Depression	-2.11	0.21	-.68	-10.24(<.001)
	Anxiety	-1.70	0.24	-.53	-6.95(<.001)
	Hostility	-2.06	0.27	-.57	-7.60(<.001)
	Phobic anxiety	-1.61	0.26	-.49	-6.15(<.001)
	Paranoid ideation	-1.67	0.26	-.50	-6.39(<.001)
	Psychoticism	-1.90	0.28	-.52	-6.76(<.001)
Additional Item		-2.02	0.27	-.57	-7.56(<.001)

Dependant Variable: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F(p)=76.54(<.001), adj R²=38.2%
 Reference group: Contraction of mental illness=No

(F=76.54,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인 수정된 결정 계수(Adj R²)는 38.2%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정신 건강이 대학생 적응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학생활 전체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정신 질환 이환유무 더미 변수($\beta=-.21$, p=.018), 정신 건강 전체($\beta=-.62$, p<.001), 정신 건강의 10개 하부영역($\beta=-.49\sim-.68$, p<.001) 등이었다. 정신 질환 이환유무는 대학생활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쳐서 정신 질환에 이환된 경우 대학생활 적응을 못하였다. 정신 건강 전체와 정신 건강의 10개 하부 영역도 대학생활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위 결과를 토대로 정신 질환 이환유무, 정신 건강, 정신 건강의 10개 하부 영역은 대학생활 전체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설명변수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정신 건강, 대학생활 적응 실태를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 정신 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하려는 본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와 동일한 연구 도구로 연구된 Hyun 등(2017)[46]에서는 정신 건강 평균 점수가 0.67점(±0.49)으로 본 연구의 정신 건강 평균 점수보다 낮았다, 이는 Hyun 등(2017)[46]의 연구 대상자의 정신 건강이 본 연구 대상자의 정신 건강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의 245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Choi(2001)[47] 연구에서의 정신 건강 평균 점수는 본 연구대상자의 정신 건강 8개 항목(강박증, 적대감, 공포, 대인 예민성, 신체화, 우울증, 불안, 편집증)의 평균 점수보다 낮았다, Choi(2001)[47]의 연구대상자의 정신 건강이 본 연구대상자의 정신 건강보다 더 좋았다. 본 연구에서 정신 건강 항목 중 가장 좋지 않은 항목은 강박증이었고 그 다음이 대인 예민성, 우울 순이었던 점은 Choi(2001)[47]연구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를 간호대학생으로 하여 정신 건강을 조사한 4편의 선행연구[48-51] 결과들은 본 연구의 정신 건강 평균 점수보다 높았다. 4편의 선행연구[48-51]의 연구 대상자 정신 건강이 본 연구대상자의 정신 건강보다 나빴다. Jung과 Lee(2015)[48] 정신 건강 평균 2.18점(±0.38), Jung과 Kwon(2013)[49] 정신 건강 평균 2.79점(±1.20), Jung과 Lee(2015)[50] 정신 건강 평균 1.77점(±0.58), Park과 Byun(2015)[51] 정신 건강 평균 2.25점(±0.65)으로 본 연구결과 의 정신

건강 평균 1.74점(± 0.73)보다 높아서 본 연구대상자의 정신 건강이 더 양호하였다.

일반인보다 정신 건강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 우울,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에 더 영향을 받으며, 이미 이환된 정신 건강 장애가 악화되거나 재발 된다[52]. 본 연구대상자의 정신 건강이 일반인의 정신 건강 정도로 양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가 별로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정도 평균 점수 3.22점(± 0.53)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연구된 선행연구[10]에서의 3.20점(± 0.56) 비교하면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코로나19 상황 전인 2019년 본 연구대상자와 동일한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53]에서의 대학생활 적응정도 결과인 총 점수 75.85(± 9.43)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더 높았다.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본 연구대상자가 대학생활 적응을 더 잘하였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조사한 연구 중 코로나19 상황 전에 연구된 선행연구들[54,55]을 살펴보면 2014년 2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54]에서는 대학생활 적응 평균 점수가 3.16점(± 0.26)이었고, 2015년 25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55]에서는 대학생활 적응 평균 점수가 3.05점(± 0.49)이었다. 두 선행연구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점수가 높아서 코로나19 상황에 있는 본 연구대상자가 대학생활 적응을 더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가 대학생활 적응을 방해한다는 선행연구[56]결과와 상반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대학생활 적응을 더 잘한다는 아이러니한 결과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 요인은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방해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선행연구[57]로 설명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 영향요인이 되는 사건에 처했다더라도, 그 사건에 처한 학생이 사건을 어떻게 수용하고 평가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 정도에 차이가 생긴다[58].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학생이 노력하여 성장한 경험을 연구한 선행연구[59]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은 비대면화된 대학환경에 적응하려고 자기 계발을 다양한 차원에서 치열하게 하고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정신질환 이환유무 더미 변수가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를 보였다($t=-2.40, p=.018$). 정신 질환에 이환된 대상자가 이환되지 않은 대상자보다 대학생활 적응을 못했다.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비교할만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 할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은 정신 건강 전체와 정신 건강 하부영역인 10개 영역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대학생활 적응 총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함을 의미하고 정신 건강 총점이 높을수록 정신 건강이 나쁨을 의미한다.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못하는 상관관계에 있었다. 이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부가적인 증상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대인관계, 개인정서적응, 신체적응, 대학환경적응에서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이나 애착의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결과 정신 건강 하부영역 중 신체화, 공포불안이 대학생활 적응 하부영역 중 학문적응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 건강 하부영역 중 신체화가 대학생활 적응과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Yoon, Hwang과 Kim(2011)[60]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향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의 하부 영역 중 신체화, 공포불안이 대학생활 적응 하부 영역 중 학문적응과 상관관계가 없는지에 관하여 연구를 반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정신 건강의 10개 하부영역 중 우울과 대학생활 적응의 5개 하부영역 중 정서 적응 간 상관성이 가장 높았다. 우울증이 심할수록 대학생활 적응 중 정서 적응을 못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정신 질환 이환유무는 정신 건강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 차이를 보였다. 정신 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정신 질환이 없는 대상자에 비하여 정신 건강이 좋지 않고 대학생활 적응도 못하였다.

정신 건강과 일반적 특성 중 정신 질환 이환유무 더미 변수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다. 정신 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4편의 선행연구[39-41,61] 결과와 일치한다. 일반적 특성 중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는 대학생활 적응을 못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려면 정신 건강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신 질환이 있는 학생을 우선 선별하여 정신 건강 하부영역 중에서 특별히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등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생의 정신 건강, 대학생활 적응의 실태를 확인하고 정신 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 정신 건강이 좋은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였다.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려면 정신건강 상태를 특별히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수와 학생과의 상담, 멘토-멘티 활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등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확대하기를 제안한다.

대부분 일반 대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연구되어 온 학교생활 적응을 간호학과 학생으로 확대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 건강과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정신 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학과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정신 건강과 정신 질환임을 발견하였고 정신건강 중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등에 취약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학생지도를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의의가 있다.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학생을 먼저 선별하여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ance

[1] C. Huang, Y. Wang, X. Li, L. Ren, J. Zhao, Y. Hu, L. Zhang, et al. "Clinical Features of Patients infected with 2019 Novel Coronavirus in Wuhan, China", *Lancet*, vol.395, no.10223, pp.497-506, 2020.
DOI: [https://dx.doi.org/10.1016/S0140-6736\(20\)30183-5](https://dx.doi.org/10.1016/S0140-6736(20)30183-5)

[2] H. J. Park, M. S. Kim, S. H. Kim, K. R. Song,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social stigma according to adult's COVID-19 infection, change in quality of life, and COVID-19 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ituational control",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vol.13, no.2, pp.39-62, 2021.

DOI: <https://dx.doi.org/10.22831/kap.2021.13.2.003>

- [3] S. Y. Yoon, Y. J. Baek, J. W. Kim. "A review of empirical studies of collegestudents' mental health during COVID-19 pandemic", *Locality and Globality*, vol.45, no.3, pp. 249~285 2021.
DOI: <https://dx.doi.org/10.33071/ssricb.45.3.202109.249>
- [4] S. Y. Park, J. H. Kim, "Campus life adaptation scale for nursing undergraduat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Nurse Education Today*, vol.7, no.9, pp.56-62, 2019.
DOI: <https://dx.doi.org/10.1016/j.nedt.2019.05.014>
- [5] M. Zhang, X. Zhao, Y. Liu, J. Yang, "Perceived stress and possible stressors in the general public in Chin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thics,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18, pp.e100695, 2021.
DOI: <https://dx.doi.org/10.1016/j.jemep.2021.100695>
- [6] F. Bu, A. Steptoe, D. Fancourt, "Who is lonely in lockdown? Cross-cohort analyses of predictors of lonelines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ublic Health*, vol.5, pp.31-34, 2020.
DOI: <https://dx.doi.org/10.1016/j.puhe.2020.06.036>
- [7] H. J. Choi, E. J. Lee.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9, no.2, pp.261-268. 2012.
DOI: <https://dx.doi.org/10.7739/jkafn.2012.19.2.261>
- [8] S.Hurtado, D. F. Carter, A. Spuler, "Latino student transition to college: Assessing difficulties and factors in successful college adjustmen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37, no.2, pp.135-157, 1996.
DOI: <https://dx.doi.org/10.1007/BF01730113>
- [9] S. H. Hong, "Mediating effects of social iso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20, pp.301-310, 2021.
- [10] Y. R. Lee, J. H. Jo, "COVID-19 stress and depression effect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20, pp. 249-263, 2022.
DOI: <https://dx.doi.org/10.22251/ilcci.2022.22.20.249>
- [11] Y. R. Lee, J. H. Jo, "A study on the effect of Corona-19 stress on college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life -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9, no.12, pp.1-22, 2022.
DOI: <https://dx.doi.org/10.21509/KJYS.2022.12.29.12.1>
- [12] M. H. Park,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COVID-19",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vol.13, no.6, pp.4817-4829, 2022.

- DOI: <https://dx.doi.org/10.22143/HSS21.13.6.334>
- [13] Il. H. Yun, "The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COVID-19 pandemic: Focusing of multi-parallel triple mediation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learning flow, and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1, no.4, pp.119-142, 2021.
DOI: <https://dx.doi.org/10.35273/jec.2021.11.4.006>
- [14] S. O. Choi, E. A. Park, "Factors associated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in COVID 19 pandemic: Focusing on self-directed learning, self-efficacy and academic burnou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23, pp.183-195, 2022.
DOI: <https://dx.doi.org/10.22251/jlcci.2022.22.23.183>
- [15] Y. H. Cho,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 Interpersonal relation, academic stress, ego identity",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7, no.1, pp.225-233, 2023.
DOI: <https://dx.doi.org/10.21184/ikeia.2023.1.17.1.225>
- [16] M. Y. Kim, Y. A. Kim, E. B. Kyung,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 who experienced a non-face-to-face semester due to COVID-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8, no.6, pp.167-174, 2022.
DOI: <https://dx.doi.org/10.17703/JCCT.2022.8.6.167>
- [17] S. N. Choi, M. H. Ryu, J. H. Yoo., S. H. Park,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major, and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in COVID-19 crisis situ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5, no.1, pp.333-346, 2023.
DOI: <https://dx.doi.org/10.37727/jkdas.2022.25.1.333>
- [18] H. R. An, J. Y. Lee,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justment in COVID-19",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No.3, pp.34-45, 2021.
DOI: <https://dx.doi.org/10.22156/CS4SMB.2021.11.03.034>
- [19] J. S. Kim, "The effects of stress related COVID-19 and resilience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4, no.1, pp.103-110, 2023.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23.24.1.103>
- [20] E. N. Ryo, J. O. Kim, H. M. Hwang, "The influence of anxiety, depression, and learning satisfaction due to COVID-19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16, pp.475-485, 2022.
DOI: <https://dx.doi.org/10.22251/jlcci.2022.22.16.475>
- [21] World Health Organization. Promoting Mental Health: Concepts, Emerging Evidence, Practice, Summary Report,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2004.
- [22] E. Wilson, "Where next for youth mental health? reflections on current research and considerations for the future", *Journal of Mental Health*, vol.29, no.4, pp.371-375, 2020.
DOI: <https://dx.doi.org/10.1080/09638237.2020.1766001>
- [23] R. C. Kessler, P. G. Amminger, S. Aguilar-Gaxiola, J. Alonso, S. Lee, T. Bedirhan Ustun, "Age of on set of mental disorders:A review of recent literature".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vol.20, no.4, pp.359-364, 2007.
DOI: <https://dx.doi.org/10.1097/YCO.0b013e32816ebc8c>
- [24] J. Brown, "Student mental health: Some answers and more questions", *Journal of Mental Health*, vol.27, no.3, pp.193-196, 2018.
DOI: <https://dx.doi.org/10.1080/09638237.2018.1470319>
- [25] J. Hunt, D. Eisenbeg, "Mental health problems and help-seeking behavior among colleg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46, no.1, pp.3-10, 2010.
DOI: <https://dx.doi.org/10.1016/j.jadohealth.2009.08.008>
- [26] H. W. Rückert, "Students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counselling in Europe", *Mental Health & Prevention*, vol.3, pp.34-40, 2015.
DOI: <https://dx.doi.org/10.1016/j.mhp.2015.04.006>
- [27] H. M. Stallman, "Psychological di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ison with general population data", *Australian Psychologist*, vol.45, no.4, pp.249-257, 2010.
DOI: <https://dx.doi.org/10.1080/00050067.2010.482109>
- [28] J. Xiong, O. Lipsitz, F. Nasri, L. M. Lui, H. T. Gill, et al.,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mental health in the general population: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277, pp.55-64, 2020.
DOI: <https://dx.doi.org/10.1016/j.jad.2020.08.001>
- [29] S. Fish, J. A. Shelly, *Spiritual care: The nurse's role*, Downers Grove, Ill. Inter Varisity Press. Illinois, United States, pp.34-53, 1978.
- [30] H. S. Kim, "Personality type,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2, no.4, pp.385-393. 2003.
- [31] K. S. Han, G. M. Kim "Comparison to self esteem, family adaptati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ymptoms of stress between nursing and other major university women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6, no.1, pp.78-84, 2007.
- [32] H. I. Lee,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a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22, no.1, pp.97-107, 2008.
- [33] A. Hoffart, S. U. Johnson, O. V. Ebrahimi, "Loneliness and social distanc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Risk factors and associations with psychopathology", *Frontiers in Psychiatry*, vol.11, pp.589127, 2020.
DOI: <https://dx.doi.org/10.3389/fpsy.2020.589127>
- [34] P. G. Van Der Velden, P. Hyland, C. Contino, H. M. Von Gaudecker, R. Muffels, M. Das,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the recovery from symptoms,

- and lonelines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Findings from a Dutch population-based longitudinal study”, *PLoS One*, vol.16, no.1, pp.e0245057, 2021.
DOI: <https://dx.doi.org/10.1371/journal.pone.0245057>
- [35] Department of Mental Health Managem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VID-19 mental health fact-finding announced [Interne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2021 [cited 2021 July 26].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99 (accessed March 12, 2023)
- [36] J. J. Chang, Y. Ji, Y. H. Li, H. F. Pan, P. Y. Su, “Prevalence of anxiety symptom and depressive symptom among college students during COVID-19 pandemic: A meta-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292, pp.242-254, 2021.
- [37] M. Haikalis, H. Doucette, M. K. Meisel, K. Birch, N. P. Barnett, “Changes in college student anxiety and depression from pre-to during COVID-19: Perceived stress, academic challenges, loneliness, and positive perceptions”, *Emerging Adulthood*, vol.10, no.2, pp.534-545, 2022.
DOI: <https://dx.doi.org/10.1177/21676968211058516>
- [38] P. Shea, T. Bidjerano, “Effects of online course load on degree completion, transfer, and dropout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of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Online Learning*, vol.23, no.4, pp.6-22, 2019.
DOI: <https://dx.doi.org/10.24059/olj.v23i4.1364>
- [39] G.C. Jeong, Y. H. Jin, “Moderating effects of mindful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college life adjustm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9, pp.430-440, 2019.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9.19.09.430>
- [40] K. M. Kim, Y. W. Park, T. W. You, “The effects of mental health,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of junior college students - focus on the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vol.52, pp.29-51, 2018.
- [41] S. S. Baek, J. Y. Cho,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and mental health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7, pp.77-85, 2016.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6.17.7.77>
- [42] R. W. Baker, B. Siryk,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Weston Psychological Services, 1989.
- [43] L. R. Derogatis, R. S. Lipman, L. Covi, “SCL-90: An outpatient psychiatric rating scale-preliminary report”, *Psychopharmacol Bull*, vol.9, no.1, pp.13-28, 1973.
- [44] J. H. Kim, K. L. Kim, “The Standardization Study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 in Korea III”, *Mental Health Research*, vol.2, pp.278-311, 1984.
- [45] Y. J. Lee,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Seoul, Korea, 1999.
- [46] M. S. Hyun, M. S. Yoo, J. Y. Lim, J. E. Park,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among University Students: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vol.24, no.3, pp.325-335, 2017.
- [47] S. M. Choi, “comparative study on the college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of the university students of Korea and China : focused on the university students of Korean, China-Korean and Chines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6, pp.117-132, 2001.
- [48] H. Y. Jung, K. S. Lee, “A study on the mental-health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3, no.3, pp.390-398, 2015.
DOI: <https://dx.doi.org/10.15205/kschs.2015.3.3.390>
- [49] H. Y. Jung, J. O. Kwon, “A study on the stress, self-esteem, and mental-health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no.4, pp.191-204, 2013.
DOI: <https://dx.doi.org/10.12811/kshsm.2013.7.4.191>
- [50] H. Y. Jung, K. S. Lee, “A Study on the stress, self-esteem, mental-health and suicidal-ide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3, no.2, pp.328-339, 2015.
DOI: <https://dx.doi.org/10.15205/kschs.2015.3.2.328>
- [51] S. H. Park, E. K. Byun, “Factors influencing the mental health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2, pp.8284-8291, 2015.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5.16.12.8284>
- [52] H. Yao, J. H. Chen, Y. F. Xu, “Patients with mental health disorders in the COVID-19 epidemic”, *The Lancet Psychiatry*, vol.7, no.4, pp.e21, 2020.
DOI: [https://dx.doi.org/10.1016/s2215-0366\(20\)30090-0](https://dx.doi.org/10.1016/s2215-0366(20)30090-0)
- [53] H. S. Cha, “Influence on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8, pp.381-391, 2019.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9.20.8.381>
- [54] S. S. Baek, J. Y. Cho,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and mental health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7, pp.77-85, 2016.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6.17.7.77>
- [55] M. J. Hwang, Y. E. Jang, “The effect of smart phone addiction on adjustment to college :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Journal of Public Policy Studies*, vol.37, no.1, pp.29~53, 2020.
DOI: <https://dx.doi.org/10.33471/ILA.37.1.2>
- [56] W. C. Birmingham, L. L. Wadsworth, J. H. Lassetter, T. C. Graff, E. Lauren, M. Hung, “COVID-19 lockdown: Impact on college students’ live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71, no.3, pp.879-893, 2021.
DOI: <https://dx.doi.org/10.1080/07448481.2021.1909041>
- [57] G. S. Kim, Y. J. Park,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dergraduate due to COVID-19”,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9, pp.644-651, 2021.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21.21.09.644>

- [58] C. H. Hwang, “Analysis of stress for a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Aging Friendly Industry Association*, vol.4, no.1, pp.73-82, 2012.
- [59] J. H. Jo, Y. R. Lee, “A study on the adaptation and growth of university students with the change of university life in the COVID-19 pandemic”,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9, no.5, pp.255-282, 2022.
DOI: <https://dx.doi.org/10.21509/KJYS.2022.05.29.5.255>
- [60] H. S. Yoon, Y. M. Hwang, D. B. Kim, “The effects self-differentiation stress coping methods and mental health on life adjustment in university”,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vol.10, no.2, pp.1-25, 2011.
- [61] S. H. Jang, S. S. Ham, “The effect of family function, mental health, career identity on school life adjustment in cade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2, pp.329-351, 2016.

차 현 수(Hyun-Su Cha)

[정회원]



- 200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간호학과 (보건학 석사)
- 201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2017년 2월 : 서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보완대체요법, 간호대학생